



### 캠코, 목포에 '캠코브리리' 43호점 개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9일 목포시 대양동 소재 '너랑나랑 지역아동센터'에서 '캠코브리리 43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사진)

이날 개소식은 차상위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박희자 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장, 하재성 대한적십자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캠코브리리(KamcoBrary)'는 '캠코(KAMCO)'와 '도서관(Library)'의 합성어로, 지역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습과 독서문화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내 노후 공간을 리모델링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주는 캠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캠코브리리 43호점은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목포 지역사회 내 도서환경 조성이 필요한 너랑나랑 지역아동센터를 목포시청 및 대한적십자사와 협업해 직접 발굴한 곳이다.

나다운 기자



### 완도 청해어린이집,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완도 청해어린이집 교직원과 원생들로부터 희망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성금은 청해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과 함께 원아들이 용돈을 모은 돼지저금통을 보태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기부된 성금은 위기가정 긴급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돕는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모아준 성금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청해어린이집 교직원과 원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 농협은행 광주본부, 책임경영 강화 나선다

NH농협은행 광주지역본부가 새해를 맞아 책임경영 강화를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관내지점장과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책임경영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농협은행의 핵심 가치인 고객 중심, 신뢰 경영, 지역사회 발전 실현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을 담았다.

각 지점장은 광주본부 경영 방침에 맞춰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결의했다.

장재영 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올해는 농협은행 출범 13주년을 맞는 해로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은행으로 도약하자"며 "광주본부는 올 한 해도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 광주자연과학고, 희망2025나눔캠페인 동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사랑의열매)는 9일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로부터 희망2025나눔캠페인 학교모금 성금 5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전달된 성금은 광주자연과학고 학생회 및 전문교육부에서 봉어빵, 어묵 등 푸드트럭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교육취약계층에게 쓰일 예정이다.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학생회는 "직접 모은 수익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여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해 우리사회가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백인화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장은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해 모인 성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나눔 문화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 광주총장신탁, 지역 청소년 스포츠단체 후원

광주총장신탁은 올해로 6년째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핸드볼부에 후원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지역 스포츠 단체를 활성화하고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 스포츠 단체 후원식'을 열고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핸드볼부에 운영비 500만 원을 후원했다.

'학교 스포츠 단체 후원사업'은 비인기 종목이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학교 스포츠 단체를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광주총장신탁은 2020년 이후 6년째 지속적으로 후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총장신탁은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기량을 키울 수 있도록 스포츠 물품과 장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권범 기자



### 광산구, 4기 이웃갈등 조정활동가 위촉식

광주 광산구는 지난 8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제4기 이웃갈등 조정활동가' 위촉식과 1차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

9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웃갈등 조정활동가'는 최근 사회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흡연, 증간소음 등 일상생활 속 이웃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행사는 제4기 이웃갈등 조정활동가 14명의 위촉식과 조정활동가들의 실천 역량을 키워줄 심화 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광산구는 지난 2022년부터 이웃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이웃갈등 조정활동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웃갈등 조정활동가 인원을 14명으로 늘리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중점으로 안정적인 이웃갈등 조정 지원에 힘쓰고 있다.

김상철 기자

## 샤이니 키, 모 퇴임 병원에 5천만원 기부

그룹 '샤이니' 멤버 키(사진)가 어머니의 퇴임식을 기념하기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다.

10일 오후 11시10분 방송되는 MBC TV 예능물 '나 혼자 산다'에서 키는 어머니를 위해 어릴 적 할머니가 해준 가족들만의 메뉴인 '계 간장조림'을 만들고, 레시피도 공개한다.

키는 36년 만에 퇴임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퇴근길을 함께 하기 위해 대구 본가에 내려왔다고 밝힌다.

그는 "오늘 하루는 어머니를 위한 날"이라며 깜짝 파티를 준비한다.

주문 제작한 퇴임 기념 선물은 물론 풍선, 플래카드 등으로 집을 꾸민다.

앞서 키는 어릴 적 할머니가 많이 해주던 키 가족들만의 메뉴인 '계 간장조림'의 맛을 찾았다고 기뻐했다.

키는 부모님께 추억의 맛을 선물하기 위해 직접 계 간장조림을 만든다.

또한 양손 가득 선물과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의 직장으로 향한다.

그는 "어린 시절 엄마 출퇴근길을 따



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기억이 있다"고 떠올리며 어머니의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인 병원에 도착한다.

키의 등장에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하며 동료 직원들에게 아들을 소개한다. 어머니의 자리를 본 키는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뿌듯한 마음을 전한다.

키는 어머니와 함께 일한 직원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 이에 어머니는 "아들 키운 보람 있네"라며 웃음을 짓는다.

아들과 함께 곳곳에 인사를 나누는 어머니는 한 회의실로 키와 함께 향한다.

키는 자신이 오자 분주해진 회의실 분위기에 당황한다.

키는 어머니와 어린이병원 환아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 현장에 참석했다. 그는 어머니의 퇴임식을 기념해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뉴스스

## 서예지 측, 악플러 130명 고소 "선처 없다"

배우 서예지(사진)가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대응하고 있다.

소속사 씨브라임은 9일 '서예지 배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심리적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논의 끝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씨브라임은 최근 전담팀을 편성해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된 서예지 관련 악성 게시물을 모니터링했다.

이후 법무법인을 선임해 악플러 130여 명에 대한 1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씨브라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루머, 악의적인 게시물을



시글 및 댓글 등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며 소속 배우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지는 지난 2021년 옛 연인인 배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각종 루머,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서예지가 김정현을 상대로 드라마 등에서 연기할 때 극중 로맨스 장면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정현이 이와 관련해 상대 여배우에게 딱딱하게 대했고 이를 최근 '2024 KBS 연기대상' 녹화에서 사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예지에 대한 악플도 늘어났다.

뉴스스

## 곽준빈, 프랑스 트럭 기사식당 체험 "낭만 있어"

여행 유튜브 콰트브(곽준빈)가 프랑스 기사식당을 체험했다. (사진)

지난 4일 방송된 EBS TV '곽준빈의 세계기사식당3'에서 프랑스로 떠난 콰트브는 트럭기차를 위한 기사식당의 색다른 풍경을 전했다.

콰트브는 시작부터 비행기 연착 때문에 파리에서 툴루즈로 환승하지 못하고 낙오할 위기에 놓였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툴루즈에 도착했다. 이어 기차를 타고 트럭기차를 만나러 카르카손으로 이동했다.

콰트브는 택시 기사가 추천한 식당이 브레이크 타임을 앞두고 있어 다른 가게를 찾았다. 밀크셰이크와 잠봉뵈르를 먹고 솔직하게 맛 표현을 했다.

또한 택시 기사가 안내하는 스페셜 코스를 따라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았다. 중세 성채 시데 드 카르카손도 둘러봤다.

다음 날 콰트브는 튀르키예 출신 트럭 기사의 집에 방문했다. 한국에서 가져온 약과를 선물하고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했다.

그는 침대, 음식 등 의식주가 다 담겨 있는 트럭에 신기해 했다. 트레일러에 적재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무역 회사



에서 근무했던 추억에 잠겼다. 콰트브는 트럭기차의 하루를 체험하며 휴게소 음식, 기사식당 음식을 소개했다.

프랑스 휴게소에서는 커리 샌드위치를 맛봤다. 트럭기차 위한 기사식당인 렐레 루티에에서는 샤휄와 코스 요리를 즐겼다.

한국 기사식당과 문화도, 환경도 다른 프랑스 기사식당을 경험한 그는 "매력적이고 낭만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럭에서 트럭 기사와 함께 취침할 계획이었던 콰트브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근처 숙소에 묵기로 했다.

뉴스스